

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 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〔의안번호 제230호〕

2023년 12월 12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11. 3.
- 나. 제출자 : 노미경 의원
- 다. 위원회 회부 : 2023. 11. 22.
- 라. 위원회 심사 : 2023. 11. 27.

2. 제안설명 요지(설명자 : 노미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장기화,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정서적·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자 실내에서 쉽게 기를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반려식물문화 조성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(안 제6조,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미옥)

-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·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됨.
-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서적·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자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.
- 농촌진흥청 “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¹⁾”에 따르면 - 반려식물과 보통의 실내식물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를 ‘애착 형성여부(43%)’, ‘사람과의 교감 여부(25%)’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,
 - 반려식물을 기르는 목적으로는 ‘정서적 교감 및 안정’ 55%, ‘공기정화’ 27%, ‘실내장식(인테리어)’ 14%로 나타났으며,
 - 식물 기르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공감 정도는 ‘정서적 안정’이 77%로 가장 높았고, ‘행복감 증가’ 73%, ‘우울감 감소’ 68% 순으로 조사됐음.
 - 또한 생명체로서 식물 존중에 대한 공감도는 69%로 나이에 상관없이 높았으며, 특히 1인 가구에서는 73%에 달함.
- 이처럼 이제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식물도 사람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삶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국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반려식물 보급과 함께 교육·체험, 병해충 진단·관리까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육성·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가결

5. 심사의견

- 해당 없음

1) 농촌진흥청 > 홍보 > 보도자료 > 상세보기

- (조사목적) 반려식물의 기능과 효과, 생명체로서의 식물 존중에 대한 소비자 공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
- (조사 방법 및 기간)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반려식물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자체 운영하는 소비자 집단(패널) 8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